

# 잎 두껍고 생산성 높은 잎들개용 ‘새봄’

농진청, 잎들개 최초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급중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잎이 두껍고 모양이 좋으며, 상품성 높은 잎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잎들개 품종 ‘새봄’을 개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새봄’은 잎이 심장 모양으로 둥글고 두께가 두꺼우며 속잎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특히 잎을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상품 잎의 길이가 13cm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수확에 드는 노동력을 다소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겨울철 시설재배 할 때 ‘남천들개’보다 잎 무게는 10%, 잎 수는 8% 많다. 깻잎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 ABTS·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아 기능성도 뛰어나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잎들개 종자 보급 체계 마련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위한 현장 요구에 부응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잎들개 종자를 수확할 수 있는 최적자(채종포)를 찾아 혼입 방지 및 순도 높은 종자 생산에 노

력해 왔다.

2023년부터는 잎들개 품종 최초로 ‘새봄’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급중으로 채택, 주산지 위주로 우선 보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2월부터 종자광장 누리집(www.seedplaza.or.kr)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잎들개는 시설재배 할 때 전국에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지만 노지 재배의 경우, 9월 하순 개화가 이후부터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한다. ‘새봄’은 겨울철 생육이 느려 양액으로 키우는 수경재배와 여름철 토양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가 현장평가와 수경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존 ‘남천들개’, ‘잎들개호’ 등 오래된

잎들개 품종을 ‘새봄’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경산의 도수본 농가는 “매주 잎을 수확해야 하는 잎들개는 잎이 계속 커지면 한꺼번에 따줘야 하는 양이 많아져 짧은 시간에 노동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라며 “‘새봄’은 일정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으며, 잎이 두꺼워 무게 단위로 포장했을 때 소득이 높았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농촌진흥청 발작물개발과 김기영 과장은 “들깨잎은 속잎이 5cm 이상 자라야 결실을 딸 수 있어 속잎이 자라는 속도는 안정재배에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속잎이 빨리 자라고 수경재배에도 적합한 ‘새봄’ 보급을 늘려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9일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센터에서 LED 버추얼 프로덕션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제작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 최첨단 기술 콘텐츠 제작 노하우 공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LED 버추얼 프로덕션 등 제작 시연 세미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9일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센터에서 LED 버추얼 프로덕션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제작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CONNECT Plus’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진흥원이 지역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와 영상·뉴미디어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최첨단 LED ICVFX(In-Camera Visual Effects)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무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신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과 사례가 소개돼 지역 내 콘텐츠 제작자와 영화·영상·뉴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창의적인 환경과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초고화질 LED 스크린을 활용한 실시간 렌더링 기술 시연도 마련돼 참석자들이 최첨단 콘텐츠 제작 방식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

도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화 VFX 및 VP 전문가인 박영수 더센비주얼크래프트 부사장과 허윤주 ARRI 아시아태평양 사업부 총괄 이용현 LG전자 방송/VP 글로벌 마케팅 담당 강지형 SGO코리아 기술팀장이 각각 △더센비주얼크래프트의 제작 시연 △ARRI의 컬러 매니지먼트 기술 소개 △LG전자의 버추얼프로덕션 글로벌 사례 △SGO코리아의 실사 영상 활용 제작 시연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첨단 기술과 콘텐츠 제작의 환경을 제시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콘텐츠 제작 시연을 보여 주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콘텐츠와 기업이 플러스 되도록 새로운 기술 융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새만금청, 폭설 대응 전 사업장 일제 현장점검 · 계도활동 실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9일 군산 지역 대설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새만금 지역 내 전 사업부서가 일제 현장점검 및 긴급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군산시 산업단지에서 누적 적설량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새만금청은 전 부서 비상대응체계를 발동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됐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에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새만금 건설현장과 도로 등 주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수목원 등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부작업자제 요청과 함께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단 도로 및 동서·남북도로 등에 대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제설작업을 독려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흥남 차장은 “새만금 군산지역에 연이은 폭설이 내림에 따라서 사고예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농협, 대설 · 한파 관련 긴급 화상회의 개최

특보 해제 시까지 재해대책상황본부 운영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9일 오전 대설 및 한파와 관련하여 관내

농협시군지부장 등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9일 오전 대설 및 한파와 관련하여 관내 농협시군지부장 등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시작되어 9일 오전까지 도내 평균 13.3cm의 눈이 내렸으며 특히 임실 등 산간내륙지역의 경우 최고 21cm의 적설량을 기록하였다.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도내 14개 농협시군지부를 중심으로 주요 농업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했으며, 농협전북 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특보 해제 시까지 재해대책상황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도내 지자체 ·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대설 및 한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도내 농업·농촌에 피해가 발생시 최우선으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경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전문가 컨설팅’ 개시

올해 중대산업재해 분야까지... 기업애로 신속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14개분야 전문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www.jdk.kr)’ 전문가 컨설팅을 본격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의 전문가 컨설팅은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검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내기업은 의향에 따라 컨설턴트 선택/기관 추천 상

담형태(전화·화상·방문), 애로분야, 희망일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컨설턴트와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세무·인사·수출 등 14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전년도 대비 제재사항 지침마련, 컨설팅 분야의 신설(디자인·중대산업재해)과 컨설턴트의 활동분야 제한으로 컨설팅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기업의 애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이 시스템을 인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지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에서는 14개 시·군의 지원사업 공고와 각 기관의 경제동향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도내기업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기업애로-애로해소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 전북농협,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수급현황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지난 8일(수) 설 성수기간 중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 원활한 공급안정을 위해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산지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과일 재고현황 및 수급동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은 설 성수기간 중 농축산물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설 성수품 10개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열과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에 대해 수요를 분산시키고, 수급 안정을 위해 사과, 만감류, 단풍 및 혼합으로 구성된 설 명절 우리과



일 실속 선물세트 10만개를 할인 공급할 예정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수급발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우리 농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